

한국십진분류표 900: 역사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900, ‘역사’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역사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식민지 문화유산과 약탈에 대응하는 힘	04
주목! 이 도서 역사 분야 1위 도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08
도서관 산책 역사를 잇는 도서관	10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김혜련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주제는 ‘역사’입니다.
역사와 도서관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록을 보존하는 중요한 장소로, 역사의 흐름과 변화를 간직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사서 큐레이션 따뜻한 마음으로 읽는 12월 추천 도서	14
오늘의 만남 새해, 영어 공부를 결심한 당신에게 영어교육 전문가 이보영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성시 중앙도서관’	22
보물을 찾아서 보르헤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Mariano Moreno National Library)	26
도서관 트렌드 VR과 AR을 통한 도서관 혁신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30

서재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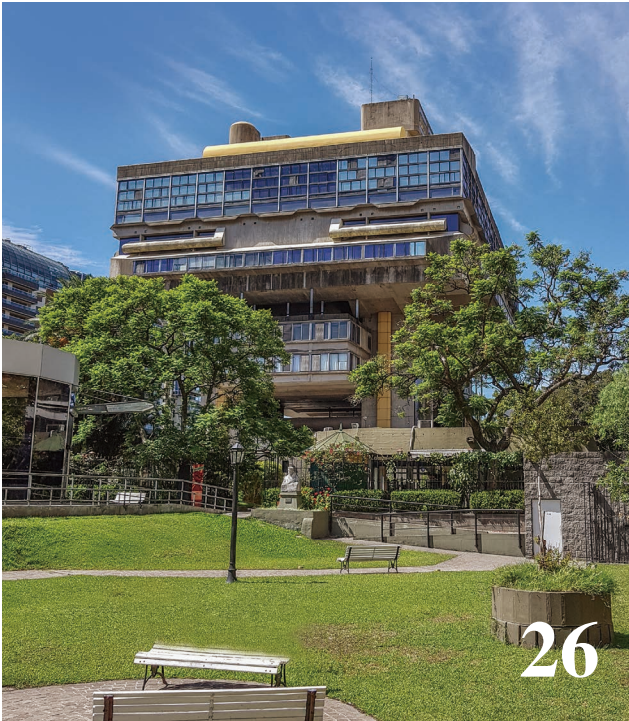
문헌의 가치 1378년 간행 목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슬픈 ‘직지’, 더 슬픈 ‘직지’	34
문학상 읽기 폭력과 고통을 기억하는 방식 한강의 《소년이 온다》	38
나를 바꾸는 독서 머나먼 꿈에서 현실로 다가온 우주 시대 폴룬(윤명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	42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내년 취미로 식물 키우기 어떠세요? ‘최근 3년간 식물학 분야 인기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역사를 읽는 조심스럽고 다양한 방법들	48

함께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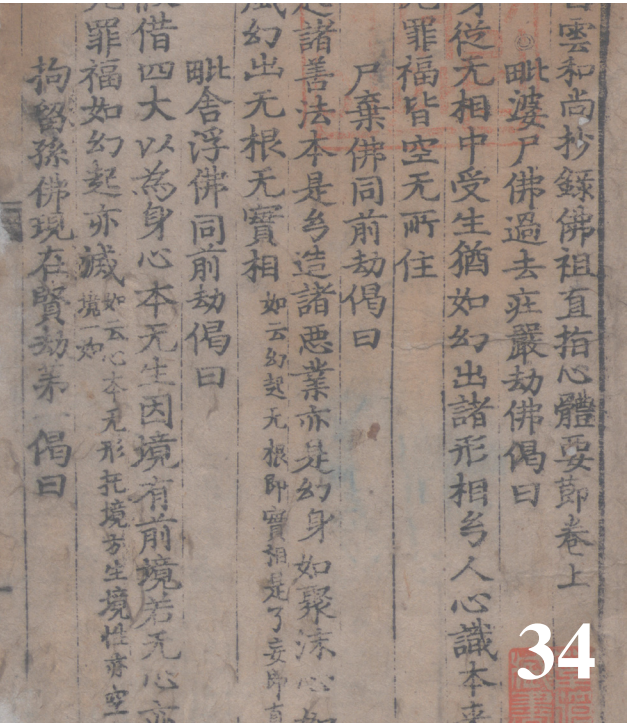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6
한 장의 감성	59



18



26



34



38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r.or.kr

식민지 문화유산과 약탈에 대응하는 힘

2017년 11월 28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브루키나파소에 있는 와가두구 대학교에서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의 종말’에 대해 연설 중이었다. 프랑사프리카는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혼합한 단어로, 프랑스가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할 때 쓰이는 부정적인 용어이다. 마크롱은 연설 후반부에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약탈국을 상징하는 프랑스가, 그것도 식민지 문화유산의 반환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다. 마크롱은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반환’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었다. 그렇다면 왜 마크롱은 탈식민주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문화유산을 주목했을까? 우리는 흔히 과거로부터 내려온 가치 있고 중요한 물건을 문화유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역사를 논하기에 앞서 인류의 부단한 노력을 따라가며 문화유산에 대한 의의를 밝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유산 수집’이라는 역할과 결부되므로 의미가 있다.

글 김병연(국가유산청 행정사무관,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저자)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역사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열 번째 분류인 역사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역사 관련 도서가 속해 있다.

문화유산 수집과 장물 취득

니콜라스 케이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보이 조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피카소 등 이들 유명 인사들을 묶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직업적으로 보면 영화배우, 가수, 화가로 구분되고 국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스페인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답은 바로 ‘장물 취득자’이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ριο는 2007년 미국 자연사 경매에서 공룡 화석을 두고 경쟁했다. 공룡 화석은 결국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낙찰되었으나 불법 반출임이 확인되어 몽골 정부에 반환해야 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ριο는 그림 2점을 선물 받았는데 나중에 이들 그림이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드러나 결국 FBI에 자진 반납했다. 영국 팝스타 보이 조지 또한 구입한 키프러스 정교회의 성상화가 전시(戰時) 약탈품으로 확인되어 반환해야 했다. 피카소는 더욱 심각해서 루브르박물관에서 도난된 이베리아 조각품(BC 3세기경 제작, 여성 머리 석상 등 2점)을 취득해 이를 모티브로 1907년 〈아비뇰의 여인들〉을 그렸다. 그러나 1911년 8월 〈모나리자〉가 도난당하면서 그의 장물 취득이 발각되어 〈모나리자〉 절도 혐의까지 받았고 결국 법원에 출두해야 했다. 그나마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나은 편이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구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나치의 약탈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즉각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사실 법원의 판단은 약탈품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소송 제기가 때늦은 것이었기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장물 취득자라는 꼬리표를 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장물을 수집한 것이었을까?



프랑스의 대표 문화유산인 루브르박물관

개인의 문화유산 수집에 대한 책임성

니콜라스 케이지를 비롯해 이들이 장물을 수집한 이유는, 문화유산 수집이 갖는 책임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왜 수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화유산 수집의 책임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출처(Provenance)’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 할 때 그의 출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생애주기를 탐구한다.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또한 태어나고 성장하며 소멸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문화유산의 생애주기를 출처라고 부른

다. 출처는 “창작되거나 발굴된 당시부터 현 소장까지의 문화유산에 관한 모든 이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진위나 가치, 소유권을 판별할 수 있다.

영미 법계는 수집가에게 스스로 출처를 규명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를 가리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라고 부른다. 출처가 갖는 유용성을 법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상당한 주의인 셈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국가의 문화유산 수집에는 어떤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

R·R의 공식과 국가의 책임성

국가의 문화유산 수집을 이야기할 때 흔히 R·R의 공식을 떠올릴 수 있다. R·R은 원상회복(Restitution)과 반환(Return)을 뜻하는 영문 알파벳 첫 글자인데, 국제사회는 1978년에 도난, 전시(戰時) 약탈, 식민지 반출 등 여러 정황을 두고 논쟁하면서 불법성을 뜻하는 원상회복 용어 사용은 도난이나 전시 약탈에 한정했다. 식민지 반출 문화유산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반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1978년 유네스코 산하에 설립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위원회(ICPRCP)’이다. 이 정부 간 위원회의 원래 명칭은 ‘문화유산의 원산국으로의 반환 및 불법 전유의 경우 원상회복 촉진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인데, 이렇게 긴 명칭을 쓴 이유는 원상회복과 반환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반환 용어에는 별도의 한정 어구가 없는 데 반하여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불법 전유’라는 수식어를 붙여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크롱이 쏘아 올린 탈식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

국제사회가 식민지 반출 문화유산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반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 합법”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 어쩌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식민지 문화유산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폭력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11월 28일 마크롱 선언이 국제사회에 주었던 전율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선언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2020년 12월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다호메이 왕국에서 프랑스 군대가 약탈한 왕실 유물 26점을 베냉공화국에, ‘엘 하지 오마르 톨의 검’을 세네갈에 반환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식민지의 역사 한복판에 있던 또 하나의 베냉이다. 역사 속 또 하나의 베냉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지금의 나이지리아를 구성하는 베닌 왕국을 가리킨다. 흔히 독일어 표기법으로는 ‘베닌’으로 읽히기도 한다(이 글에서는 베냉과 구분하기 위해 베닌으로 표현한다). 1897년 영국 원정대는 베닌 왕국의 수도를 무참히 파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이때 영국 원정대는 원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베닌 왕국에서 예술품을 약탈하는 대로 약탈했는데 이것이 ‘베닌 청동품’으로 불리는 나이지리아의 보물이다. 약탈된 ‘베닌 청동품’은 경매를 통해 매매되었으며, 대부분은 독일 박물관들이 사들였다.

놀라운 점은 나이지리아와 독일이 2022년 7월 1일 독일 박물관들이 소장한 ‘베닌 청동품’ 1,130점의 반환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나이지리아에 대해 독일은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아니었음에도 ‘베닌 청동품’ 반환에 합의한 것이다. 2017년 마크롱 선언과 뒤이은 프랑스 및 독일의 문화유산 반환은 식민주의가 지닌 폭력의 역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왕립 박물관에 전시된 베닌 청동품

식민지 약탈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문화유산을 집단 기억과 연관해 이해하려는 시각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192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1877~1945)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민 지배와 같은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겪은 공동체의 기억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실증 사례로 문화유산을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민지 가해국의 철저한 반성과 해결 의지이다. 지금처럼 식민지 가해국들이 자신들의 외교적 선의를 가장할 때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다면 국제사회는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식민지 피해자들의 집단 기억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1920년대 한국을 당시 일본인들은 ‘대난굴(大亂掘)의 시대’로 불렀다. 한반도 전역의 고분과 유적지들이 파헤쳐지고 허물어졌다. 실로 약탈의 시대였다. 그럼에도 오늘날 약탈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세계 도처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으로 주장하며 집단적 망각에 빠지거나 오히려 기억을 왜곡하여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된 한일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청구권’ 요구에 대해 어이없게도 ‘역청구권’을 주장했다. 광복 후 한반도에 남아 있던 소수의 일본인 재산이 미군정에 의해 압수된 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항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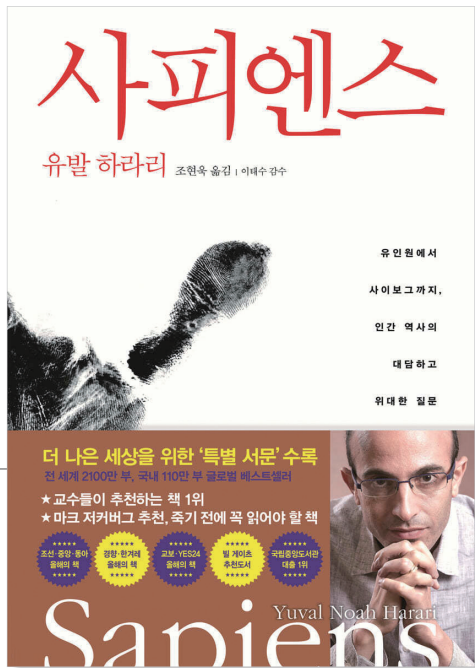
이 같은 그들의 행태는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비달나케(1930~2006)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상징이 된 아우슈비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기억의 살해자들(Les assassins de la mémoire)”이라고 외쳤던 말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들의 약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망각과 왜곡에까지 향해야 한다. 바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의 역사로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 등이다. ❶

김병연 • 국가유산청 행정사무관이자 언론사 칼럼을 통해 문화유산의 약탈과 환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청소년과 시민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남북 간 문화재 환수 협력을 위한 제언>(2018), <전쟁으로부터 문화재 보호의 게으르지 않은 역사>(2020) 등이 있다.

역사 분야 1위 도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의 이 책은 역사서이면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다. 예언서는 동서고금 이래로 주목받기 쉽고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다. 항상 제한된 결핍의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시대,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는 미래 예언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역사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2	《(펼치는 순간 단숨에 6,000년 역사가 읽히는)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	임소미	빅피시	2023
3	《역사의 쓸모: 자유롭고 멋진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	최태성	다산초당	2019
4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돌베개	2021
5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20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세계가 주목한 유발 하라리와 《사피엔스》

이름조차 생소했던 40대의 저자 유발 하라리를 세계적으로 주목 받게 한 《사피엔스》는 인류 문명사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미래 전망까지 시도한 인문 서적이다. 방대한 자료와 넓은 시야로 인류 문명이 진전되어 온 상황을 자신만의 필치(筆致)로 풀어내기에 눈길을 끌었다. 때마침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문·이과 전공을 막론하고 필수 교양 독서 목록에 오르다시피 했다. 무턱대고 미래를 예견한다면 허황되게 보일 수 있지만, 과거를 조리 있게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면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쉽다. 과거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면 미래 전망도 확실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실과 실제 사례들에서 인류의 문명사를 적절하게 짚어내면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진화와 인지혁명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 문제를 도덕적 관점이 아닌 인류 진화의 궤적에서 바라보며,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과거에 어떻게 현생 인류 종족인 사피엔스가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는데, 독특하게도 인지혁명이라는 장을 먼저 선보이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같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이라는 도식을 따르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다. 사실상 인지혁명의 논지는 책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앞에 내세워졌다. 처음에 인지혁명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인간이 단순히 이성적 존재로 지능을 우월하게 지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서 핵심은 사피엔스가 이성을 바탕으로 상상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따라 무리와 집단, 나아가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이끌거나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저자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농업혁명의 발현,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 형성,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질서로 통치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농업혁명은 사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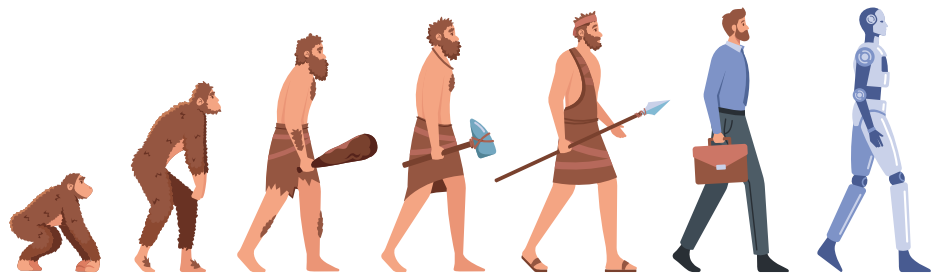
고 하는가 하면, 종교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등의 논쟁적인 주장을 펼쳐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든다.

과학혁명과 신기술의 위험

나아가 과학혁명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저자는 제국주의의 확장은 과학혁명에 따라 가능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는 점을 논파한다. 이 단계에서 현대 인류의 급진한 발전을 지적한다. 다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맥락이 내포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입해 이익을 취한 제국주의 논리가 있다. 또한 과학은 그 수단이 되었으며, 과학의 산물인 경제가 성장하는 역학 관계가 성립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혁명에 대해서 더 직설적으로 태도를 드러낸다. 저자는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에 대한 이슈도 결국 그것이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어 인류를 위협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본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 속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듯이,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게 결국 실제적인 질서가 아니기에 과학 미래,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허구라고 말한다.

이렇듯 상상 속의 질서를 통한 부작용도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기에 오늘날 인류가 버티고 있다. 상상 속의 질서는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중립적 개념이다. 관건은 그것을 누가 구축하고 주도하는가에 있다. 누군가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가 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상 속의 질서가 사회 구성원의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❶

김현식 · _____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역사를 잇는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적 중심지이다. 역사 자료 수집과 디지털화에 앞장서며, 민간 기록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도서관.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이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글 이애란(문헌정보학 박사)



역사 자료 수집과 발간을 통한 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분포되어 있다. 사료에는 문자로 적힌 도서, 신문, 일기, 편지, 금석문, 족보, 연대기뿐만 아니라 가요, 구비전설, 그림과 서체, 도자, 집터 등 광범위하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국가나 지방의 역사, 지리서, 전기서, 자서전, 족보를 수집한다. 또한 낱장의 문서, 사진, 지도, 영상, 구술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자료는 종류마다 내재한 가치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사람들이 남긴 사진으로는 그들의 생활상을 읽을 수 있다. 때때로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과거 사진 자료를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블로그에서 2022년 가장 인기 있던 사진은 1930년대 멜버른 거리의 인물 스타일과 1930년대, 1950년대 멜버른의 아르데코 건축물¹이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아르데코 건축물과 거리가 소개되면서 과거와 현대가 조우할 수 있었다.

¹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유행한 예술과 디자인 양식을 반영하는 건축 스타일로, 화려하고 세련된 장식과 대칭적이며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공공 기록물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민간 기록물도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사건과 사고, 인물의 주관적인 삶을 다룬 민간 기록물이 공공 기록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역사적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2020년부터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기록물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민간 기록물 관리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 소멸이나 민간 기록 소실을 우려해 도서관 중심의 지방사 기록물을 발간해 왔다.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의 시민이 기록한 《평택인물백과사전》, 파주중앙도서관의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평택시립 장당도서관의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서관에서는 이미 간행된 출판물을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을 통해 지역사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도서관의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역사 자료는 주제와 유형이 다양하며 소장하고 있는 주체들도 전국의 기록관(원), 역사관, 박물관, 지역문화원(재단) 등으로 여러 가지다. 심지어 민간단체나 개인 등에 산재하여 도서관이 단독으로 국가나 지역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도서관과 유관 기관이 연계해 디지털 문화유산을 공동 구축하는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진전은 더딘 현황이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계획, 2009~2013년)에서는 국공립 문화유산 기관인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연계해 지식·문화유산 공유 시스템 개발을 계획했으나 예산이 없어 좌절되었다. 2차 계획(2014~2018년)에서 재차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유산 기관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키워드로 ‘조선’을 입력하면 왕조, 역사, 지리, 유물 등에 대한 연관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스마트글램코리아(GLAM, Gallery.Library.Archive.Museum)’를 운영했지만, 재정의 지속적 지원이 어려워 일시 제공에 그쳤다. 3차 계획(2019~2023년)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역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 및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코리안 메모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지역사 자료 수집과 축적, 창조 활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도서관의 ‘서울자료’, 부산도서관의 ‘부산의 기억’,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 파주중앙도서관의 ‘기록하는 도서관’ 등 디지털화 기관이 증가했다. 4차 계획(2024~2028년)에서는 공동체 활력을 위한 연대·협력 플랫폼 정책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도서관 중심의 지역 아카이브와 디지털 자원 통합 플랫폼인 ‘코리안 메모리’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침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식자원의 기록·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해 온 한국 지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코리안 메모리’가 올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역사 자료 디지털화 및 출판을 통한 확충 사례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속해야 할 포털사이트로 ‘유포피아나(Europeana)’를 꼽는다. 유

럽연합이 2008년 설립한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유럽 전역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약 3,100개 이상의 유럽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는 문서와 책과 같은 텍스트와 사진, 비디오, 오디오, 3D 결과물까지 다양하다. 디지털화한 기록물의 상당수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려받아 재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과 협력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출판을 통한 자료의 확충도 활발하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의 삶 중에서 중요한 사건과 내용을 구술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의 기록 기관과 연계하여 그곳에서 구술 교육을 진행하고 도서관에서는 제작을 위한 녹음 매뉴얼과 녹음기 대출 서비스를 한다. 기관 간 협업으로 개인의 삶이나 행사를 대변하는 실록을 책자나 녹음 자료로 생산하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들컨트리 공공도서관(Middle Country Public Library)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다큐멘터리’를 구술로 제작했다. 인터뷰와 촬영 교육을 받은 10대가 성인 삶의 이야기를 촬영하면서 세대가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도서관과 의회도서관이 협력하여 제작한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 제작물에는 미국 재향군인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정리한 족보(가족사) 프로그램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공공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족보는 과거의 인물을 다루지만, 현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새로 등록되는 현재 진행형의 가족사이다. 가족의 뼈대에 살을 붙임으로써 조상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캐나다의 해밀턴 공공도서관(Hamilton Public Library)에서는 인기 있는 상업용 족보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에서도 족보 전문 사이트나 과거 신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은 물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족보 쓰기 강연과 워크숍 등 족보 발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 자료 수집과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도서관은 기존 출판물뿐만 아니라 구술이나 족보와 같이 직접 생산한 민간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자료를 역사자료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구술 채록이나 족보 자료는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담은 민간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역사적 문서와 결합하여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적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도서관 단위로 디지털화하여 ‘코리안 메모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코리안 메모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자료를 디지털화한다.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찾는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이자 디지털 도서관으로 공동 활용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다. 그 전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기록관(원),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유관 기관들의 공동 협력이다. ‘코리안 메모리’가 활성화되면 축적된 과거의 텍스트나 사진, 영상 등을 삽입하여 현재 가치에 맞는 새로운 기록물을 창출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이는 다시 후대의 역사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심에서 도서관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마다 민간 기록물 제작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때이다. ❶

이애란 •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장을 다년간 맡았다. 이런 활동으로 ‘전문대학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4 사서 큐레이션
따뜻한 마음으로 읽는 12월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새해, 영어 공부를 결심한 당신에게
영어교육 전문가 이보영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성시 중앙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보르헤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Mariano Moreno National Library)

30 도서관 트렌드
VR과 AR을 통한 도서관 혁신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만나다

따뜻한 마음으로 읽는 12월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 문학



남겨진 것들의 기록
: 유품정리사가 써 내려간 떠난 이들의 뒷모습
김새별, 전애원 지음
청림출판 | 2024

“때로는 작은 다정이 타인의 세상을 구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더는 홀로 쓸쓸이 떠나는 이가 없는 내일을 꿈꾼다. 그 바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닫힌 방문을 연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기록한다.”(10쪽)

《남겨진 것들의 기록》은 고독사와 유품정리사라는 단어를 널리 알린 김새별과 전애원의 신작 에세이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떠난 뒤 남겨진 상실의 아픔을 담아낸 책이다.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로 홀로 생을 마친 사람들의 쓸쓸한 마지막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쓸쓸해지고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며 남겨진 사람들의 후회와 슬픔을 다정하게 감싸안은 저자들의 진심에서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 저자 소개

김새별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다. 지금까지 천여 건이 넘는 현장을 정리하며,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애원**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특수 청소와 유품 정리를 지원하는 일을 해왔으며, 특수 청소의 의미와 고독사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허송세월》 김훈 | 2024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나는 죽음을 돌보는 수행자입니다》 능행 | 2024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유품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 김새별, 전애원 | 2015

국내 문학



윈터 씨의 해빙기
슈테판 쿨만 지음
양혜영 옮김
달로와 | 2024

“사는 동안 자신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 삶에는 분명 힘든 시간이 있다. (중략) 자신의 힘으로 그 불행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중략) 작지만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332쪽)

남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괴팍한 주인공 로버트 윈터가 주변 사람을 돌아보며 점차 마음을 열어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이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내를 잃은 뒤, 엄청난 상실감과 충격에 빠져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마음에도 점차 온기가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섬세한 문체와 유머러스한 에피소드로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책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 사이의 희망과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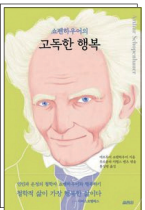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슈테판 쿨만(Stefan Kuhlmann) 독일 출생. 시나리오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소설가로 데뷔했다. 드라마 작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시간선택소: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하이지 | 2024
《삶을 건디는 기쁨》 헤르만 헤세 | 2024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 감성 에세이》 무라카미 하루키 | 2024

인문예술포럼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
: 지금 당신의 현실적인 행복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266가지 아포리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홍성광 옮김
열림원 | 2024

“은둔적인 생활 방식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전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어, 그들의 이러저러한 견해에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26쪽)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작과 편지에서 핵심 문장 266개를 엄선했한 아포리즘이다. 이 책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보다 차분하고 의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다. 행복, 내면의 아름다움, 자연,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독자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성찰하게 돕는다. 내면을 돌아보고 내적 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고독 역시 충만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고독을 자유의 자리로 본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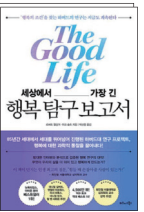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년 독일의 단치히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그의 철학은 플라톤과 칸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비관주의적 세계관으로 유명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니체의 인생수업》 프리드리히 니체 | 2023
《고독한 심리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스무 가지 심리 수업》 김앵두 | 2024
《재뉴어리의 푸른 문》 앨릭스 E. 헤로우 | 2024

인문예술포럼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 ‘행복의 조건’을 찾는 하버드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된다
로버트 월딩거, 마크 슐츠 지음 | 박선영 옮김
비즈니스북스 | 2023

“우리는 삶의 혼돈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키워둘수록 이 험난한 여정에서 살아남아 번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47쪽)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인생 질문을 던지는 책이 출간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는 세계 최장 프로젝트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밝힌다.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임자인 저자는 85년간 축적된 풍부한 사례와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행복이 삶에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긴 종단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이 책에 따르면, 나이, 인생 주기, 결혼 여부, 내향성과 외향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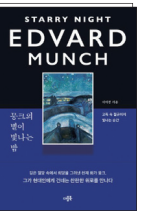
📖 저자 소개

로버트 월딩거(Robert Waltinger)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 그리고 수명연구재단의 공동 설립자다.
마크 슐츠(Marc Schulz)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부책임자이자 브린모어 대학 심리학과 수 카르다스(Sue Kardas PhD 1971) 석좌교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빅터 프랭클 | 2020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 | 2019
《삶이 고통될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앤서니 마자렐리, 스티븐 트리저악 | 2024

인문예술포럼



몽크의 별이 빛나는 밤
: 고독 속 절규마저 빛나는 순간
이미경 지음
더블북 | 2024

“몽크는 눈이 쌓인 차가운 숲속에서 들이쉬는 숨조차 차갑게 만들었다. (중략) 그러나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차분한 고독 속으로 빠져든다. 몽크의 <별이 빛나는 밤>은 우리 안의 내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282~283쪽)

《몽크의 별이 빛나는 밤》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그려낸 천재 화가 몽크의 삶과 작품을 깊이 있게 안내하는 책이다. 비극적 어린 시절부터 화가로서의 성장 과정, 사랑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몽크의 삶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삶을 택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극도의 슬픔과 외로움을 인내하고 견뎌낸 한 인간의 인생 보고서다. 올해는 몽크가 사망한 지 8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몽크의 내면세계와 독특한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몽크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몽크의 고독에 공명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이미경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별 회고전 <에드바르 몽크: 바운드 더 스크립>(2024)의 전시 자문을 맡았다. 저서로 《미술관에서 만난 범죄 이야기: 명화 속 잔혹한 이야기》와 《미술사, 한 걸음 더》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독: 불안에서 자유로》 정지욱 | 2024
《혼자이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소리아 가쓰히코 | 2020
《고독이 필요한 시간: 사람들 속에서 더욱더 외로운 나를 위한 치유법》 모리 히로시 | 2015

인문예술포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그간 외면해온 외로운 나에게 인생을 묻다
페터 베르 지음
장혜경 옮김
갈매나무 | 2024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생각이 나일 수는 없다.”(73쪽)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1부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지 못하는 시간들>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2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와 3부 <나를 느끼는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에서는 생각이 곧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감정의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다룬다. 4부와 5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여정>과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에서는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저자 스스로가 번아웃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저자 소개

페터 베르(Peter Beer) 심리학자이자 명상 코치이다. 자동차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인간의 본질과 행복을 탐구하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이후 심리학을 공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 공부》 김병수 | 2024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사피로 | 2024
《그 집에 사는 네 여자》 미우라 시온 | 2020

사회과학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 오늘도 고립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
안예슬 지음
이매진 | 2023

“고립을 견디는 과정은 개인적이지만 고립에 접어드는 과정은 너무나 사회적이다.”(236쪽)

고립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청년의 자살 시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의 나침반은 남성만을 가리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포함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4세 여성 청년 10명의 고립 경험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 있다. 여성 청년이 고립되는 주요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와 불안정한 가정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여성 청년들은 어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숨어 있는 여성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적·구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여성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 저자 소개

안예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천여성학 석사를 취득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정책위원으로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여성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립청년 생존기: 추승헌 인터뷰집》 추승헌 | 2023
《고독을 건너는 방법》 이인 | 2021
《자발적 고독》 올리비에 르모 | 2019

사회과학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지나 지음
돌베개 | 2023

“나는 성장하고 싶은 어린 생명이 가난이란 굴레와 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그들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싶었다.”(7쪽)

여기 허약한 가정 울타리 속에서 생존조차 버거운 아이들 여덟 명이 있다. 정규 학력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부모,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없이 장애와 질병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가 막막한 보호자 아래, 아이들은 방치되고 고립된 채 10대를 맞이한다. 안타깝지만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이며, 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다. 고등학교 교사인 저자는 빈곤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청소년 정책을 공부했고,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10여 년의 세월을 기록했다.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한 명, 한 명의 서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맥락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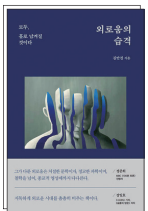
📖 저자 소개

강지나 25년 경력의 교사로서 청소년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빈곤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책을 집필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영 케어러와 홀 닥터, 각자도생 사회에서 상호호존의 세계를 상상하다》조기현, 홍종원 | 2024
《일인칭 가난: 그러나 일인분은 아닌》 안온 | 2023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 2022

사회과학



외로움의 습격
: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김만권 지음
헤다 | 2023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청년 세대가 적절한 소득 없이, 혼자 살면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있다.”(52쪽)

정치철학자 김만권은 그의 책 《외로움의 습격》에서, 외로움이 원래부터 있던 감정이 아니라 사회변동에 따라 인류에게 새롭게 학습된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외로움에 대해 먼저 주목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을 토대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짚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급속히 진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 어떻게 더 심화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서술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위에 기술된 모든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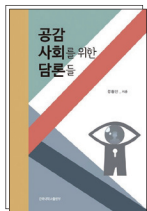
📖 저자 소개

김만권 현재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호모 저스티스: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등 10여 권의 책을 썼고, EBS <클래스>에서 ‘근대 정치철학사’ 등을 강의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한나 아렌트, 성난 개인들의 시대에서 인간성 회복의 정치로》이인미 | 2023
《고통 구경하는 사회: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김인정 | 2023
《사람을 안다는 것: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데이비드 브룩스 | 2024

사회과학



공감사회를 위한 담론들
강황선 지음
건국대학교출판부 | 2023

“이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외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존의 요구이다. 그 안타까운 몸짓에 나와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 (중략) 그 몸부림을 묵살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인간의 본유적 감관이자 공동체의 기초 시스템이 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219쪽)

양극화로 인한 개인의 소외와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이거나 비논리적 어리광으로 치부되어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공감을 실천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진다. 이 책은 이러한 세태에 대한 사회학적 처방전이다. 저자는 그동안 사회·경제적 격차와 각자도생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된 ‘자유주의 이론’이 실은 공감하는 개인을 전제하고 펼쳐진다는 점을 밝히며, 이들을 보완하는 대안 담론들도 제시한다. 이는 사회규범을 재설계하는 틀이 되며, 공감을 통한 인간의 양심과 사회적 정의를 형성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경제체계를 수립하는 단초라고 결론짓는다. 특히 공적 영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 저자 소개

강황선 건국대학교에서 행정이론과 행정철학을 공부한 뒤, 미국 러커스 대학교에서 전략적 성과관리를 공부했다. 미국의 국가 생산성연구소, 서울연구원, 건국대학교에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감의 반경: 느낌의 공동체에서 사고의 공동체로》장대익 | 2022
《공감하는 유전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하여》 요아힘 바우어 | 2022
《연결, 공유, 현대의 공동체: 도시 문화기술학》황희숙 외 | 2023

자연과학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 쉽게 불안해하는 당신을 위한 걱정 끊기의 기술
이광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 2024

“불안은 죄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31쪽)

SNS 속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교의 기준을 다양하게 가질 것을 제안한다. 예쁜 골프복을 입은 친구가 부럽다면, 골프 외에도 직업, 인간관계, 자존감, 건강 등 다른 기준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박탈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책에는 사소한 일에 멘탈이 흔들리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들에게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 저자 소개

이광민 평소 불안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사소한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이들을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명쾌한 마음 관리법을 전한다. tvN <일상의 지식: 어쩌다 어른> 등에 출연하여 자문과 상담을 해왔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뇌과학자의 자기감 수업》 김학진 | 2023
《생각의 배산: 머릿속 생각을 끄고 일상을 회복하는 뇌과학 처방전》 배종빈 | 2024
《불안할 땐 뇌과학: 불안하고 걱정하고 예민한 나를 위한 최적의 뇌과학 처방전》 캐서린 피트먼, 엘리자베스 칼 | 2023

자연과학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
: 남몰래 난치병 10년 차, ‘뺨먹다살찐땃’이 온몸으로 아프고 온몸으로 사랑한 날들
양유진 지음
21세기북스 | 2024

“타인에 의해 조금은 다치고 멍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거나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123쪽)

저자는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배우로, 청소년 시절부터 10여 년 넘게 루푸스라는 병을 앓아왔다. 루프스는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난치병으로,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다. 루프스를 친절한 친구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항암 병동에서 만난 어른들에게 위로와 배려, 굳건한 태도를 배웠다. 난치병 환자에서 배우이자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까지,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냈는지를 꾸밈없고 경쾌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지침이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양유진 크리에이터이자 배우이며, 연기와 학생 시절 자취방을 무대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방구석 극장’을 선보였다. 난치병 환자로서 겪어온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 더 좋은 기분, 더 좋은 삶을 위한 뇌 사용법》 안데르스 한센 | 2023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 내적 성장을 위한 지친 마음 다스리기》 김선현 | 2023
《우울에서 벗어나는 46가지 방법: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가장 과학적인 우울증 해결책》엘릭스 코브 외 | 2023

새해, 영어 공부를 결심한 당신에게 영어교육 전문가 이보영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랜 시간 영어교육 현장을 걸어온 이보영(58)은 잘 배우는 사람이 결국 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르치는 사람도 먼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녀에게, 영어를 배우는 기쁨은 소중한 가치다. 여전히 영어를 좋아하고 공부한다는 이보영.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통찰은 영어 학습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이보영입니다. 현재는 EBS FM 라디오에서 <Easy English>(월~토요일 오전 7시 20분)라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급반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교재를 비롯해 다양한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어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전략이나 교육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100% 국내파 영어 강사’로 유명하십니다.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어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영어를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미국 가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요. 집에서 주로 TV를 많이 봤습니다. 당시 낮에 유일하게 시청할 수 있던 채널이 주한미군방송(AFKN)뿐이었어요. 그걸 보다가 지금으로 치면 ‘저스틴 비버’급에 해당하는 아이돌 가수한테 빠진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대한민국 최초 여성 비행사 김경오 씨)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팬레터를 쓰라고 하신 거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영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소통을 하려니 영어를 알 수밖에 없었고,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후 영어 말하기를 잘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남이 하지 않은 뭔가를 한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게 굉장히 기쁘고, 알게 된 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럼요. 저는 영어 말하기 교수법을 전공했는데요. 영어 교사분들을 교육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잘 배워야 한다”예요. “Let’s try to become good learners first, so we can become good teachers.” 잘 배우는 사람이 됐을 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아주 못했는데, 혹은 영어를 아주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까 늘게 됐을 때 의 희열은 느껴본 사람만 알거든요. 이와 더불어 특히 남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지 못해도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 분야에 오랜 시간 몸담고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영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영어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라디오 방송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하면 업서도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사과 껍질에 업서가 빠져나올 정도로 꺾꽂 눌러 담은 게 매달 3박스씩 왔어요. 그게 청취자분들과의 소통 창구였죠. 지금도 댓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 배운 정도로만 영어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의 반 정도 수준만큼을 말할 수 있으면요. 그런데 사실 말을 해볼 경험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영어 말하기에 주눅 들고 자신이 없어 하세요. 저는 영어를 하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영어로 기쁜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영어 공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자녀의 영어교육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 습니다. 하루는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영어 선생님 딸인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고요. 그랬을 때 괜찮다고, 엄마는 너 나이 때 너보다 훨씬 더 못했다고 말해 줬어요. 또 어느 날 아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솔직히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엄마도 진심으로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좋은 팔로워는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줬 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려면 리더를 도와주거나 좋은 리더를 고를 수는 있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면 누가 팔로우하겠어요. 제가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해줬던 건, 이렇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어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공부를 과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뇌를 정말 많이 사용해야 하거든요. 저도 매년 국제학회에 두세 번씩 나가는데 그때마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해서 머리에 쥐가 나요. 몇 번을 연습하고 고치고, 입에 불도록 나의 어투

로 고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쓰고 확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다 해준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할 수 없고, 엑셀이 계산해 준다고 해서 수학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영어로 인한 작은 성공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을 가셔도 화장실이라는 단어로 ‘toilet’ 대신 ‘bathroom’이나 ‘restroom’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성취감을 위한 과정으로 영어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메시지나 선생님만의 교육법(또는 학습자로서 학습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디오로 말씀드리면, 라디오 시간이 18분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 말하는 순서를 꼭 넣습니다. 영어를 따라 해보면요. 자기 귀에는 자기 발음이 제일 먼저 들립니다. 올바른 발음을 내려고 애를 써야 올바른 발음으로 말하는 게 들리죠. 많이 듣다 보면 입이 열린다는 것도 물론 근거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알아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가 같이 가야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영어 공부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말하기를 중요시한다면 스스로 일상에서 반드시 말할 것 같은 문장을 10개만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만약 비즈니스 영어라면, “그분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외근 나가셨는데요”, 혹은 “날짜를 바꾸려 합니다”처럼 10개만 정리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상관 표현들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는 하다가 슬그머니 놔 버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아직도 영어를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통번역을 공부해서인지 우리말과 상응하는 표현이 뭔지 찾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in the blink of an eye”라고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있는 먼 나

라가 그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같은 개념을 가질 수 있는지 놀랍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반영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들여다보고, 제가 모르는 걸 누군가 설명해 주면 재미있게 듣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는 자주 가시나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할 때 특강 초청을 받아 많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보면 요즘 도서관은 머물고 싶은 공간이더라고요. 저는 책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책이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책을 거의 280권 정도 쓰게 됐는데요. 항상 제 책이 어떻게 꽃혀서 누구에게 읽히고 있을까 생각해요. 실용서 쪽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 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이보영 •

현재 EBS FM 라디오에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영어가보영’, ‘이보영말문영어’ 등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또한, 국내 지역 축제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위치 기반 플랫폼 ‘애니스피크 페스티벌’을 개발했으며, 시니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학습지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그 밖에 유아동 영어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영어 교재를 집필하며 영어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상에서 영어로 인한 작은 성공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을 가셔도 화장실이라는 단어로 ‘toilet’ 대신 ‘bathroom’이나 ‘restroom’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성취감을 위한 과정으로 영어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영어교육 전문가 이보영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성시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

4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때, 각 학교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경기도 안성시에는 상대적으로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았다. 이에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책을 배달하고 책을 읽어주는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이라는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취재 장성욱 사진 안호성

안성시 중앙도서관

주소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전화번호 031-676-7941



안성시 중앙도서관 전경

16개 도서관을 잇는 허브 도서관

밝은 미래와 새로운 상상력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안성시는 해답의 실마리를 ‘도서관’에서 찾았다. 안성시는 1면 1도서관(1개의 면에 1개의 도서관 설립) 구축을 비롯해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세대별 문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개관한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관내 설립된 16개 도서관(공공도서관 6곳, 작은도서관 10곳)을 잇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17년 동안 시민들의 독서를 책임졌다.

도서관의 서비스를 증진하고 독서 관련 행사를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전자도서관 운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6개 도서관을 매일 순회하는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이다. 안성 시민이라면 거주지와 도서관의 거리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할 수 있다. 안성시는 관내 도합 100만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농 복합시인 안성시에는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유행

행하면서 학교 수업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자 취약계층 아이들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2021년부터 면 단위 지역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책을 배달하고 읽어주는 프로그램,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지혜 사서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에서 선정된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은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스스로 독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와 안성시 복지교육국 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와 저희 도서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 운영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을 통해 그룹홈·다문화·장애아동·저소득층·조손·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책 꾸러미를 배달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교사로는 책에



어린이자료실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간제 교사 12명을 채용했고, 아이들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박 사서는 말했다.

“2021년 사업 첫해에는 사업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협조 요청을 드렸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받는 다문화가정 부모님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사업 특성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개방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막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 교사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발음을 교정할 수 있었고, 연령과 취향을 반영한 책 꾸러미를 2주에 한 번 배달 받아 독서 습관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교사와 유대 관계를 쌓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첫해에 신청한 가정 중 다음 해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 가정으로부터 소개받아 신청하게 되는 가정도 늘면서 이제는 참여 모집 또한 수월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96가정, 153명의 아이들이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의 혜택을 받았어요. 책 배달 서비스의 경우 1,035회 가정

을 방문해 1만 131권의 도서를 제공했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경우 982회 가정을 방문해 9,851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영상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선정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의 따뜻한 취지를 알리고자 ‘2023 사서한마당 영상콘텐츠 공모전’ 현장 우수사례 분야에 동명의 영상을 출품했다.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사서는 사전에 촬영 협조를 요청한 뒤 방문한 게 전부였으며 순조롭게 촬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상 촬영을 위해 따로 준비할 게 없을 정도였어요. 방문 교사가 책 꾸러미를 담아 배달 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촬영 협조를 부탁드린 가정을 방문해서 평소처럼 책 읽는 모습을 담았을 뿐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연출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방문 교사와 아이들이 그동안 정말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내내 담당자로서 너무나 뿌듯했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이 잘 전달된 결과, 안성시 중앙도서관은 ‘2023 사서한마당 영상콘텐츠 공모전’ 현장 우



‘2023 사서한마당 영상콘텐츠 공모전’ 현장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은 영상의 첫 화면

수사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우수도서관에 선정됐고, 지난 10월에는 제 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였다.

작년과 올 한 해,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안성시 중앙도서관. 내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음’이라는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방문 교사가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뀐 것과, 방문 교사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이나 주말에도 책 배달을 갈 수 있게 배려한 점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 사업을 잘 운영할 것 같아요. 최근에 안성시에 이주 노동자 유입이 늘었는데, 이 가정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❷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책 1,000권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연령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꿈과 함께 도서 배달〉영상 담당 박지혜 사서

“이 사업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아이들 ‘스스로 독서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없이 책을 스스로 읽도록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방문하지 않은 날엔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또 저희가 한 해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록할 수 있도록 독서 일지를 한 권씩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선생님에게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한 아이가 거기에 처음에는 책 읽기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보르헤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Mariano Moreno National Library)



외관은 투박하다. 회색은 건조하고 콘크리트는 거칠다. 무미건조한 재료와 치장 없는 인테리어는 미묘함을 넘어 둔탁한 인상마저 준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조금씩 느낄 수 있다. 꿈틀대는 땅의 질감, 컷가로 굴러오는 소리, 공기 중에 섞인 돌먼지 내음. 견뎌온 세월과 쌓여온 지혜가 아주 긴 모습을 드러낸다.

글 김윤아(《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사진 위키피디아

레콜레타(Recoleta)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인사들이 묻힌 레콜레타 묘지를 비롯해 국립미술관과 레콜레타 문화센터, 부에노스아이레스 디자인 몰과 같은 문화시설이 밀집된 거리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건물은 자칫 삭막하게 보인다. 철근과 콘크리트, 벽돌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은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이다.

도서관은 '5월 혁명'의 열기 속에서 설립됐다. 1810년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아르헨티나에서는 독립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언론인, 변호사, 정치인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마리아노 모레노는 독립을 위해 지식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도서관 건립을 주도한다. 같은 해 9월 도서관이 설립되고, 마리아노는 도서관장을 맡아 독립투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장서를 축적해 간다. 특히 산티아고 라이너스(Santiago Liniers, 전 총독), 후안 구티에레즈(Juan Gutiérrez, 전 주지사) 및 로드리고 오렐라나(Rodrigo Orellana, 코르도바 주교)의 책임하에 있던 예수회 도서관을 기반으로 양질의 서적을 채울 수 있었다. 설립 초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공공도서관의 이름으로 운영되던 도서관은 상징성을

인정받아 1884년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으로 승격하게 된다.¹ 이후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도서관을 이끌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문인 폴 그루삭은 무려 44년간 관장으로 재임하며 서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필사본 컬렉션 등을 구축했으며, 당대 도서관 발전을 분석한 서적도 편찬한다.²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문호로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관장직을 수행하며 도서관 문화와 사상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다. 특히 보르헤스는 도서관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데, 그가 국립도서관장에 이르는 서사와 그 후의 영향력이 한 편의 소설 같기 때문이다.

1 <https://medium.com/@historiadasbibliotecas/biblioteca-nacional-mariano-moreno-8344c03655f3>

2 《Anales de la Biblioteca》(1900)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내부

저항과 화합의 상징, 보르헤스와 국립도서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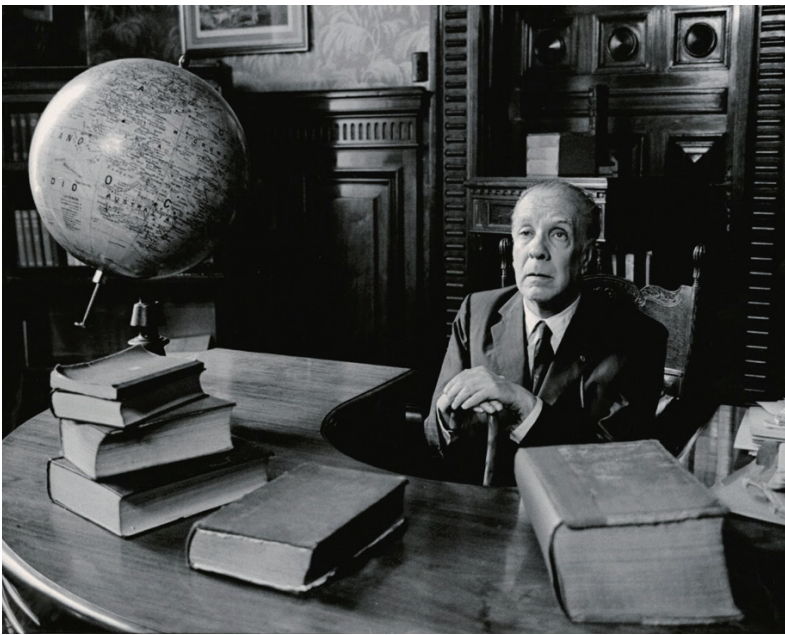
1937년 청년 보르헤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의 미겔 카네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중,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독재 정치의 성향을 보였던 후안 도밍고 페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서직에서 해고된다. 1955년 페론 정권이 붕괴하자 아르헨티나 작가협회에서 보르헤스를 국립도서관장으로 추천하며 명예롭게 도서관에 돌아오게 된다. 그는 취임 후 도서관 저널인 《라 비블리오테카》를 재출판했는데, 이는 단순히 출판물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적 담론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저널을 통해 사회에서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대중의 참여와 지적 토론을 확장했다. 이처럼 도서관의 물리적 기능과 은유적 역할을 확장하며 건물 신축도 추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도서관은 페론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지어지게 됐다.

신규 도서관 건축 공모전이 진행됐고, 가장 큰 설계 조건은 주변 식생 보존과 환경의 조화였다. 이는 독립을 위한 화합과 성장의 초석이었던 도서관의 중요한 가치였다. 당선된 공모작은 건물의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짓는 구조로, 넓고 깊은 뿌리 부분에는 책을 보관하고 다양한 가지 부분은 여러 열람실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의 형상으로 제격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공모작이 당선되고 나서 11년 후에야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1976~1983년의 군사독재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수십 년간 간헐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끝에, 1992년 마침내 완공에 이르렀다. 수십 년에 걸친 공사는 오랜 갈등과 균열, 상처 자국을 남겼다. 동시에 끈질긴 협력과 이해,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거친 마감, 본연의 재료, 노출된 기능은 당시 유행하던 브루탈리즘 기법으로, 합리적이고 소박한 건축 방식이었다.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두었던 정신과도 부합했다. 이처럼 도서관 위치, 건축 방식, 설립 과정은 아르헨티나 역사 그 자체로 남아 있다.

보르헤스와 함께하는 도서관

도서관은 지층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며 공원의 일부처럼 운영되고 있다. 정원에는 보르헤스와 소설가 훌리오 코르타사르의 동상이 있다.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은 100만 권의 책, 지도, 악보와 그림, 동전, 사진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한 곳이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어 도시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도 꼽힌다.



1971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밖에 세워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선물의 시〉가 새겨진 돌

소장품 중에는 《돈키호테》초판과 15세기 인큐네볼러* 21권, 1455년 《구텐베르크 성경》의 주요 부분처럼 유명한 문화유산도 있지만,³ 도서관의 성장에 헌신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연구하는 자료처럼 유일한 보물도 있다. 반세기 가깝게 도서관을 이끌었던 폴 그루삭의 이름을 딴 연구실은, 그의 작품을 비롯해 작품 기증자 및 수집가의 이름을 딴 연구 조직과 연구자를 위한 학습 공간,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또 한 명의 관장이자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보르헤스를 위한 대규모 연구센터도 있다. 위치는 당시 보르헤스가 머무르던 곳으로, 보르헤스 작품의 초판, 원고, 비평 및 참고 작품 등을 다루는데 《부에노아이레스의 열정(Fervor de Buenos Aires)》(1923), 《정면의 달(Luna de enfrente)》(1925), 《산마르틴의 일지(Cuaderno San Martín)》(1929)와 같은 보르헤스의 초기 시집 초판 등 귀중한 자료를 비롯해 창작 과정과 수정이 포함된 원본 원고들도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2013년에는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배신자와 영웅의 주제〉에 대한 다른 결말이 적힌 원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르헤스 연구센터는 그의 개인 서가, 강연 자료, 지인과 나눈 서신과 즐겨 찾던 장소 등 그의 생애 전반을 다루며, ‘보르헤스로 걷는 아르헨티나’ 등도 진행한다. 비단 그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한 도서관, 문학, 예술, 인간과 삶을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다. 보르헤스에 대한 연구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시도했던 현실과 환상, 무한과 현재가 공존하는 개념이 예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장이 된 지 1년 만에 시력을 잃게 된 그는 시로써 말한다.
“절묘한 신의 솜씨를 보라! 책과 어둠을 동시에 주신 경이로운 아이러니.”
〈선물의 시(Poema de los dones)〉 일부

아이러니하고 경이롭게도, 책을 볼 수 없었지만 책으로 볼 수는 있었다. 그에게 책을 들려주고 그의 작품을 받아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눈에서 귀, 입에서 손으로 이야기가 흐르며 생애에 걸쳐 50권에 가까운 수필, 단편소설, 시집을 세상에 펼쳐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성찰과 철학으로 도서관을 무한한 진리를 발견하는 장소, 꿈의 광장으로 해석한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이상적인 도서관의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눈먼 수도사이자 장서관인 호르헤는 보르헤스를 모델로 한 인물이다. 저자가 보르헤스에 대한 흥미를 담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도서관은 말한다.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질문과 풀이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끝없는 문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⁴ 꿈을 꾸고, 의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곳. 관습에 눈먼 사람이 되길 바라는 곳. 도서관은 눈이 먼 채로 길을 밝혔던 이들로 도서관을 재조명한다. 연구실, 연구센터, 그리고 도서관의 이름으로 말이다.⁵

도서관은 건립된 9월 13일을 기념하며 ‘사서의 날’을 제정했다. 이러한 도서관에서 찾아야 하는 것, 검색해야 하는 것,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 ‘센터’가 아닌 ‘문화’ 센터가 되길 바라는 곳에서. 눈이 멀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앞을 못 본 대문호는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다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단지 보지 말라, 부디 비전을 가져라.”⁶

* 인큐네볼러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1450년경부터 1500년까지 유럽에서 활자로 인쇄된 서적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은?

도서관명	Mariano Moreno National Library (Spanish: Biblioteca Nacional Mariano Moreno)
운영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낮 12시~오후 7시
주소	Agüero 2502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P 1425EID,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bn.gov.ar

- <https://turismo.buenosaires.gob.ar/en/otros-establecimientos/national-library>
- <https://portal.ehri-project.eu/institutions/ar-005434>
- 2013년 1월 8일부터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최초의 도서관장이었던 마리아노 모레노의 이름을 딴 Mariano Moreno National Library(Spanish: Biblioteca Nacional Mariano Moreno)로 불리게 된다.

김윤아 •
《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취리히 등에서 40여 곳의 서점을 탐방했고, 가장 인상적인 10여 곳에서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거진에 책과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영감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VR과 AR을 통한 도서관 혁신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최신 기술의 발달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¹은 여러 도서관에 기회이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VR을 활용한 귀중 도서 열람, 고서 체험, VR/AR 연계 독서 활동, 도서관 내 VR/AR 공간 구축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지원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VR/AR 서비스를 알아보자.

글 이지욱(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 사진 각 도서관



1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실감서재로 체험하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보, 고서, 귀중본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서, 고지도 등의 귀중본 자료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서재', '미디어 월'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디지털 창작실 내에 '실감서재'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같은 고서에 고성능 프로젝터와 멀티 터치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삽화가 움직이도록 '디지털 북'으로 구현해 이용자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고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으로 책 제목을 검색하면, 대형 화면에 3D로 책 정보가 노출되어 원하는 책을 한눈에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은 고지도를 고해상도 이미지와 동적인 콘텐츠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고지도인 '목장지도', '수선지도'를 체험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상세 정보를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실감서재는 도서관의 가치 있는 소장 자료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면서, 소장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우수한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VR/AR 기반 미래형 독서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은 최신 장비를 활용한 독서 체험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책의 내용을 VR/AR로 각색해 참여자가 온몸으로 체험하거나, 독후 활동으로 VR/AR을 활용한 영상을 시청한다. 게임 등을 통해 독서의 몰입도도 높여주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실감서재'(대형 미디어 월과 터치스크린 테이블이 있다.)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전경

은평구립도서관은 'VR과 함께하는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VR과 함께하는 독서토론'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급 사업으로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읽고 토론을 하면서 VR 기기(오쿨러스 장비)를 통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VR 기기를 활용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의 색을 채워주는 활동으로 ICT 기술과 독서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독후 활동이 되고 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VR 기술을 동화에 적용하여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자와 함께 벽과 바닥을 터치하면서 생동감 있는 동화 이



은평구립도서관 'VR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운영 현장

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첨단 IT 기반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내며, 미래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에게 VR/AR 기반의 독서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존의 독서 활동과는 달리 체험하는 시간이 많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VR/AR 연계 교육 및 연구 지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VR/AR 환경은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며, 첨단기기 및 장비는 교육 및 연구 지원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공공·학교·대학도서관에서 VR/AR 장비 도입 및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VR Lab을 구축해 최신 장비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재학생들의 창의 및 혁신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VR Lab은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VR 기기를 활용한 생물·화학정보학 비교과 수업을 통해 실제 신약 개발 과정을 실험해 보며 실감 나는 교육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신기술 융합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실감형 도서관 서비스 및 실감형 콘텐츠의 확산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VR/AR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장 자원 활용, 독서, 교육·연구를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❶



곡성어린이도서관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 운영 현장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VR Lab' 운영 모습

이지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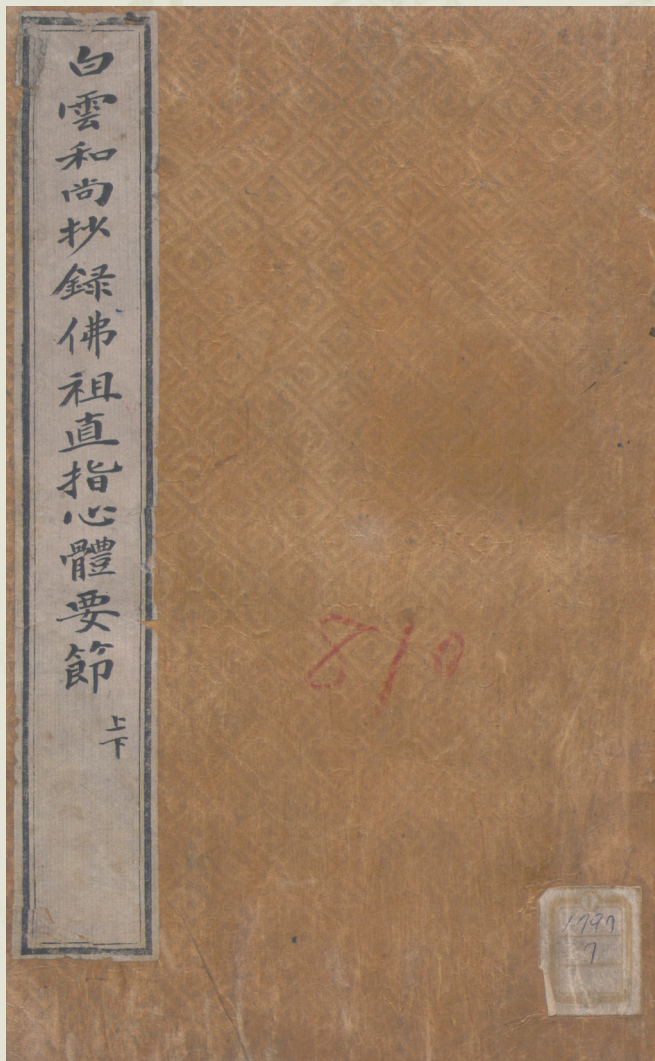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 34 **문헌의 가치**
1378년 간행 목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슬픈 '직지', 더 슬픈 '직지'
- 38 **문학상 읽기**
폭력과 고통을 기억하는 방식
한강의 《소년이 온다》
- 42 **나를 바꾸는 독서**
머나먼 꿈에서 현실로 다가온 우주 시대
폴윤(윤명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
-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내년 취미로 식물 키우기 어떠세요?
'최근 3년간 식물학 분야 인기 도서 분석'
- 48 **똑똑한 독서 생활**
역사를 읽는 조심스럽고 다양한 방법들



서재를 견다

1378년 간행 목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슬픈 ‘직지’, 더 슬픈 ‘직지’



목판본 '직지' 표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1377년(고려 우왕 3)에 충청도 청주목의 흥국사에서 간행한 ‘직지’다. 책 전체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로, 본명이 경한(景閑, 1298 또는 1299~1374)인 “백운이라는 고승(화상)이 간추린(초록) 부처님(불조)의 깨달음(직지심체)을 요약한(요절)” 책이라는 의미다. 조금 줄여서 ‘직지심체요절’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많이 줄여서 ‘직지’라고 부른다.

글 이기봉(고문헌과 학예연구관)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슬픈 ‘직지’, 금속활자본

‘직지’는 상하 2책 중 하권만 전하며, 서양의 금속활자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구텐베르크 42행 성경》(1455)보다 78년 앞섰다.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 절터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졌다지만 관련한 문헌 기록이 없어 사찰의 이름은 오리무중이었다고 한다. 1984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을 의뢰했고, 1985년 10월에 “갑인오월일서원부흥덕사금구대좌(甲寅五月日西原府興德寺禁口臺座)”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청동금구(靑銅金具)가 발견되어 ‘직지’를 간행한 흥국사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청주 흥덕사지(淸州興德寺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의 인쇄처라는 역사적 의의를 높게 여겨 1년도 안 된 1986년 5월 8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3층석탑을 복원하고 건물터를 정비하였으며, 흥덕사지 남쪽에 고인쇄박물관을 건축하여 1992년 3월 17일에 개관하였다.

흥국사지의 발굴부터 사적 지정, 고인쇄박물관의 개관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별로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청주교

인쇄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문화 민족임을 널리 알리고 우리 선조들의 위업을 후세에 전하며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를 기록유산 분야의 세계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직지상 제정을 추진했고, 그 노력의 결과 2004년 4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직지상¹⁾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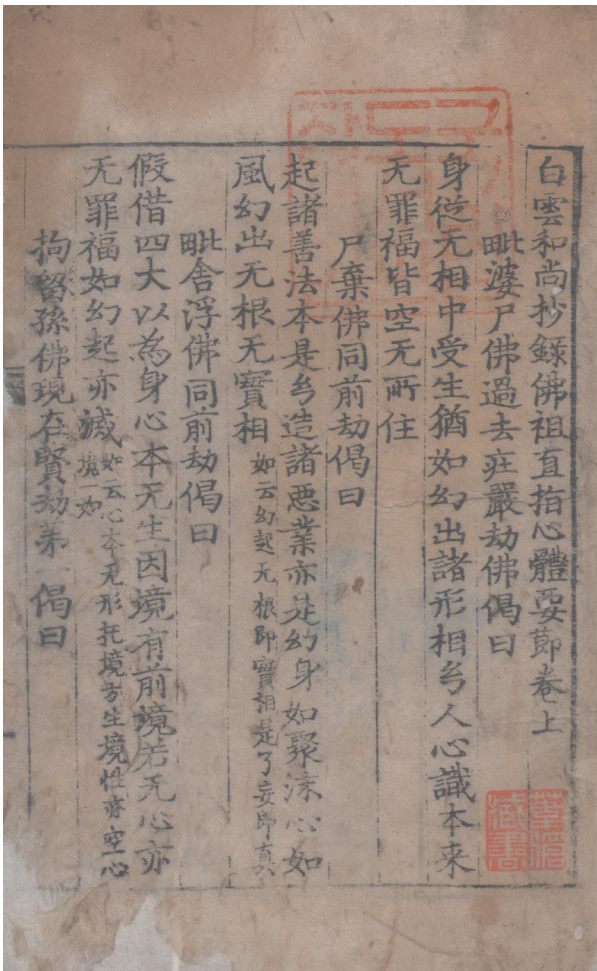
우리의 지난한 노력으로 ‘직지’의 위상은 세계인 모두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고향 땅에 있으면서 그 진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러지 못하니 ‘직지’는 슬프다. 현전하는 ‘직지’의 금속활자본 하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쉽지만 이국땅에서라도 그 가치가 빛나고 있으니 잘 보존해 왔고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책의 ‘다품종 소량생산’과 금속활자

필자는 고문헌의 역사와 서지 정보를 연구하는 문헌정보학과의 서지학 전공자가 아니다. 고문헌과의 전신인 고전운영실에 입사할 때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쇄사에 대해서는 언뜻언뜻 기초 지식만 들어온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 필자처럼 서지학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금속활자를 왜 발명했는가?”라고 물으면 백에 아흔아홉은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책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라고 말이다. 서양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 책의 대량 인쇄로 나아가 지식 혁명의 불꽃을 피우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말을 꽤 들어왔을 테니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그런데 고문헌과에 근무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서지학을 전공한 동료로부터 이런 상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책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금속활자를 발명한 근본 이유란다. 서지학 전공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찬찬히 생각해 보고 나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¹⁾ 유네스코 직지상(영어: UNESCO / 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기록유산의 보존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목판본 '직지'의 내제(內題) 표시면

直指

예를 들어 갑자기 5권의 책을 30부만 만들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서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30번을 써서 만드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이었던 목판에 새겨 인쇄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손으로 일일이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목판은 질이 낮더라도 한번 새겨놓으면 수백 부를 인쇄할 수 있고, 품질이 좋으면 수천 부까지도 인쇄할 수 있다. 하지만 5권의 책을 새길 목판 제작 또는 구입과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비용이 손으로 30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러니 30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목판 인쇄를 택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30부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발명한 것이 금속활자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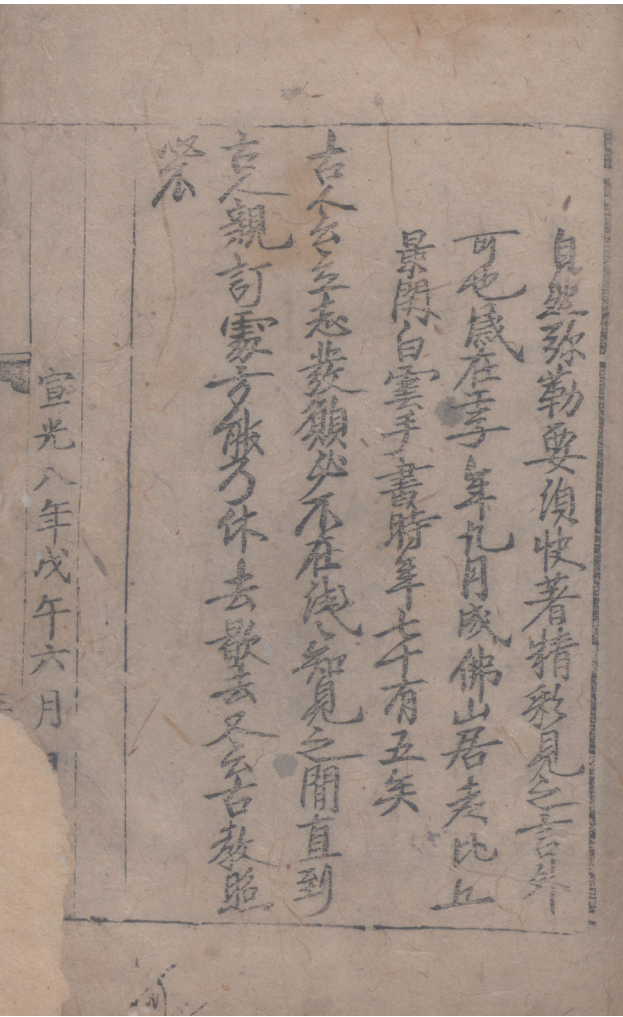
금속활자는 주조할 때의 초기 비용이 목판에 새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주조해 놓으면 첫째, 목판보다 더 많은 부수를 인쇄해도 쉽게 닳지 않고, 둘째, 목판은 단지 거기에 새겨진 한 종류의 책만 인쇄할 수 있는 반면에 금속활자는 조립과 해체가 간편하여 수십 종, 수백 종, 많게는 수천 종의 책도 인쇄할 수 있다. 이것이 금속활자의 발명 이유이고, 짧게 정리하여 표현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인 것이다. 활자에는 금속활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에서 먼저 진흙을 도자기처럼 구운 도활자와 나무에 새긴 목활자도 만들었다고 한다. 둘 다 금속활자에 비해 초기 비용은 훨씬 싸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깨지고 닳아서 많은 책을 인쇄할 수 없기에 중국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목활자는 금속활자의 보조 역할로 사용되다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는 민간에서 족보와 문집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유행하면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더 슬픈 '직지', 목판본

세로로 얇은 대나무를 고정시킨 틀에 금속활자를 단단하게 끼워 넣어 인쇄하는 조립식 인쇄는 갑인년인 1434년(세종 16)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인자(甲寅字)'부터 시작되었다. 계미년인 1403년(태종 3)과 경자년인 1420년(세종 2)에 주조한 금속활자 '계미자(癸未字)'와 '경자자(庚子字)'까지만 해도 벌집에서 추출한 고체 밀납에 활자를 꽂아 인쇄하는 고착식 인쇄였다. 그래서 계미자와 경자자는 활자의 밀이 뽕죽했고, 갑인자는 활자의 높이가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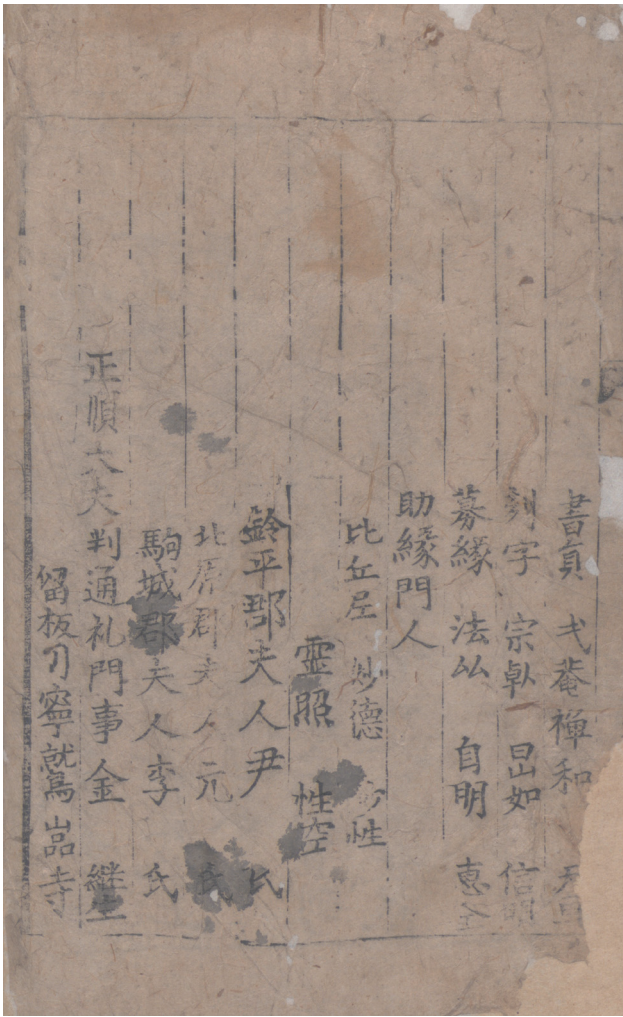
평평했다. 고착식 인쇄는 밀납에 꽂은 활자가 여러 번의 인쇄 과정에서 헐거워질 수 있는 반면에 조립식 인쇄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게 되어 인쇄 부수와 속도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고, 워낙 뛰어난 인쇄 방식이어서 조선 후기까지 새로운 혁신은 없었다.

조선의 계미자와 경자자보다 앞선 1377년의 금속활자본 '직지'는 당연히 고착식으로 인쇄한 것이다. 게다가 국가가 아니라 흥국사라는 사찰에서 주조하여 인쇄한 것이라 그런지 글자의 행이 일정하지 않고 글자도 삐뚤빼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속활자본 '직지'는 적은 부수라도 빠르게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탄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장기적으로 '직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유산이 있다.



'선광(宣光)' 8년(1378) 표시면

금속활자본 '직지'가 간행된 다음 해인 1378년(우왕 4)에 백운화상(白雲和尚, 1298~1374)이 입적한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에서 인쇄한 목판본 '직지'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에 새겼으니 금속활자본보다는 훨씬 많이 찍을 수 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슬픈 금속활자본 '직지'의 유명세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 슬프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목판본 '직지'는 국가유산인 보물로 지정되길래도 했으니 그래도 낫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 '직지'는 성사달(고려 후기 문신, ?~1380)과 이색(고려 후기 문신, 1328~1396)의 서문이 없다는 이유로 보물 대우도 못 받고 있다. 언젠가 국가유산인 보물로 지정되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❶



간행처 '취암사(鷲嵒寺)' 표시면



폭력과 고통을 기억하는 방식 - 한강의 《소년이 온다》

한강의 소설을 읽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가 잊으려 했던 고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안긴 폭력은 사라지거나 줄어들든다. 이것이 우리가 한강의 소설을 꼭 읽어야 할 이유이다.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위키피디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4년 10월 10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날 저녁 8시에 모든 방송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속보 자막으로 보도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반가운 소식에 전 국민이 환호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그는 이미 노벨문학상을 받을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한강 작가는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닻〉이 당선되어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계간지 《문학과 사회》에 시 4편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다.) 그 후 단편소설집 《여수의 사랑》, 장편소설 《검은 사슴》 등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과 고독감을 표현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2005년 그의 단편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에 선정됨으로써 그는 우리 문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 작품은 기이한 소재와 특별한 인물 성격은 물론 상징성이 풍부한 시적인 문체로 우리 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전통적 소설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섬세한 감수성으로 인간의 슬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 당시의 주된 평가였다.

2016년에는 작가의 세 번째 장편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인 작가 최초 맨부커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남긴다. “압축적이고 정교하고 충격적인 소설이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맨부커상 선정위원회의 선정 이유이다. 이후 2017년 이 글에서 살펴볼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2018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아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리하여 결국 2024년 10월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된다. 노벨문학상 선정 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그의 문학적 행보를 돌아보았을 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미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여 한국 문학에 첫 노벨문학상을 안겨줄 역량을 착실하게 쌓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이 소설은 1980년 5월 광주가 배경이다. 그곳은 계엄군에 의한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으로 폭력과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주인공 '동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목격한다. 그는 친구를 찾아 헤매다 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된다. 동호가 죽은 후 소설은 주인공 동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아들을 잃고 상실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호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 파괴된 자들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 동호와 함께 죽은 친구 정대는 영혼으로 떠돌다 자신의 누나와 동호가 죽었음을 알고 슬픔을 안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 외 은숙, 김진수, 선주 등 동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비극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상실감을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험한 폭력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준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은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5.18 기념공원

Human



Acts

1

역사적 사건을 그려내는
작가의 특별한 눈

이 소설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의 사실적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그곳에서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조명해 보여준다. 또한 폭력의 잔혹성과 그것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을 아주 고통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이 한강의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쉽게 읽히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잔혹한 폭력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러한 폭력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작가는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함께 그것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용기를 같이 보여준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다. ❶

황정산 •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1 《소년이 온다》 표지

머나먼 꿈에서 현실로 다가온 우주 시대 폴윤(윤명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

이 책은 우주에 가는 것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닌 우리 시대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전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발사취부터 현재의 우주산업 동향까지, 우주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인류의 일상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면, 이 책은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머나먼 환상에서 현실로 다가온 우주

현대인의 고질병,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필자는 두 가지 영상 중 하나를 틀곤 한다. 양철지붕에 내리는 빗소리 혹은 천문 과학에 대한 다큐멘터리. 빗소리가 당연히 유명한 수면 방법이지만, 우주 다큐멘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건 언뜻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편안히 잠들었다는 댓글이 매우 많은 걸 보면, 분명 현실적 걱정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력에 대중적 공감에 있는 것 같다. 아마 우주로의 여행은 당장 내일 해야 할 일과 무관하고, 오늘날 지구 단위의 심각한 문제보다도 더 머나먼 환상적 시공간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별 사이로 유영하는 우주비행사의 배경색으로 까만 크레파스를 모두 써버렸던 어린 시절 과학 상상화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하튼 우주란 현실과는 무관하고 멀게만 느껴져서 먼 미래나 추억 속의 꿈에 가깝다. 그런데 저자 폴윤(윤명현)은 막연한 우주를 바로 우리 시대가 당면한 현실이자 시급한 과제라고 단언하고 있다. 우주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나 꼽으면서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일까?

강대국의 우주 독점에서 다국적 우주 정치의 시대로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우주 개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현재를 짚으면서 시작한다. 초반부는 우주 탐험의 중심국인 미국 NASA의 임무나 활약에 대한 소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다 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미 자주 봤듯이, 낯선 것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호기심을 NASA의 존립 근거로 설명하는 서술은 다소 익숙한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느슨하게 읽게 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하지만 우주산업의 역사에 대한 기본기를 확인하며 읽는 일은 기다리는 보람이 있다. 우리 시대의 우주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은 달과 화성 같은 외계 행성을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채굴 자원은 소유할 수 있다는 국제법의 관행을 바탕으로 우주로 진출하고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어 갈등이 예측된다. 앞으로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경제적 분쟁이 계속 급증할 텐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우주 조약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미션(Artemis Mission)’은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기 거주 인간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은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역사적 프로젝트 ‘아폴로 미션(Apollo Mission)’ 등은 냉전시대에 강대국이 국방력을 과시하는 우주 진출이었다. 반면 이제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탐사로 목적이 바뀐 양상이다.

대한민국도 우주 조약과 아르테미스 미션에 참여하고 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강대국이 주도하던 우주산업이 이제는 다국적 체제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문제뿐 아니라, 우주 단위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와 외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인공위성의 궤도와 우주 쓰레기를 둘러싸고 이미 우주 단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짚어 주면서, 우주 정치를 우리 시대의 과제로 불러들이고 있다. 우주는 그저 과학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문사회적 사유를 요구하기도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적 가치를 당연한 인문 교양으로 배우는 것처럼, 머지 않아 우주 헌법과 태양계 의회 제도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우주가 열어주는 오늘의 가능성들

한편 이 책은 우주 진출이 다국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변화도 중요하게 짚어준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나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스타링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제는 국가 주도의 우주산업에서 민간 경제의 우주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 탐사와 우주 비행의 목적을 다변화하는데, 군수산업이나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한 과학 및 산업 분야에 우주 과학이 응용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장부터 시작되는 동시대 우주 산업의 동향,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포함한 후발 주자들의 현황을 짚어주는 대목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우주에서 이미 우리가 얻고 있는 과학적, 산업적 성과들의 사례를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약 회사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나,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의 노력이 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비행 자동차를 위한 원천기술과 관련된다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3D 프린터나 로봇 광부 같은 기술이 우주과학을 통해 발전해 가는 구체적인 현황을 읽다 보면 이미 우주에서 인류가 활약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연스레 이 책이 전망하듯, 달에 생길 우주 호텔과 무중력 환경을 이용한 우주 스포츠 같은 미래의 휴가 계획도 그려보게 된다. 이렇게 도래한 현재를 저자는 “우주 경제 시대의 개막”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일찍 도착한 우주 교양 예능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는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로 살피지는 않는다. 그 대신 우주를 둘러싼 주제와 화제를 넘나드는 짧은 글 모음집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독자에게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대목에서 끝나버려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와 폭넓은 이야깃거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책을 뒀다가 NASA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대사로 일했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는 저자 풀윤(윤명현)의 악력을 다시 확인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하여 ‘우주 교양 예능’이라고 부를 만한 장르가 등장한다면, 이 책은 그 선구적인 자리에 있을 것이다. ❶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적 가치를
당연한 인문 교양으로 배우는 것처럼,
머지 않아 우주 헌법과 태양계
의회 제도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김건형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내년 취미로 식물 키우기 어떠세요? ‘최근 3년간 식물학 분야 인기 도서 분석’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 하나로 식물 키우기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고 있다. 식집사(식물과 집사를 합친 말로 식물을 키우는 사람), 플랜테리어(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것) 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주목받는 식물 키우기. 우리가 이렇듯 식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3년의 식물학 분야 인기 도서를 통해 알아봤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12.1.~2021.12.31. / 2022.12.1.~2022.12.31. / 2023.12.1.~2023.12.31.(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2021



《식물학자의 노트: 식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신혜우 글·그림 | 김영사 | 2021

신진 식물학자가 펴낸 자연 일러스트 에세이로, 식물의 생존과 성장 과정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책이다. 식물 각 부분의 역할을 탐구하고, 식물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전함으로써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며, 작은 식물들 속에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해준다.

1

252회

《식물학자의 노트: 식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신혜우 글·그림 | 김영사 | 2021

165회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 서수지 옮김 | 사람과나무사이 | 2019

165회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
우종영 지음 | 한성수 편집 | 메이븐 | 2019

0 100 200 300 400

2022



《꽃말의 탄생: 서양 문화로 읽는 매혹적인 꽃 이야기》

샬리 쿨타르트 지음 | 박민정 옮김 | 동양북스 | 2022

해바라기, 민들레, 아카시아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5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소개한다. 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런 꽃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 유래와 함께 관련된 신화, 문학, 역사, 미신 등 다양한 서양 문화를 설명한다.

1

305회

《꽃말의 탄생: 서양 문화로 읽는 매혹적인 꽃 이야기》
샬리 쿨타르트 지음 | 박민정 옮김 | 동양북스 | 2022

286회

《이웃집 식물상담소: 식물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과 위로》
신혜우 지음 | 브라이트 | 2022

210회

《식물학자의 노트: 식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신혜우 글·그림 | 김영사 | 2021

0 100 200 300 400

식물로 정신적 위안을 얻는 사람들

식물을 주제로 한 도서들은 식물을 돌보는 기쁨을 넘어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식물이 지닌 생존 전략과 방식, 문화적 상징, 식물의 쓰임 등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식물 키우기를 넘어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책들이다. 저자들의 다양한 직업도 주목할 만하다. 식물학자, 인류학자, 나무 의사, 조향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이를 일상과 연결 짓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식물이 주는 위로와 통찰을 전달하며, 식물을 돌보는 일이 곧 자신을 돌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❶

2023



《향수가 된 식물들: 에르메스 조향사가 안내하는 향수 식물학의 세계》

장 클로드 엘레나 지음 | 카린 도어링 프로저 그림 | 이주영 옮김 | 아멜리에북스 | 2023

조향계의 전설로 불리는 장 클로드 엘레나가 쓴 책으로, 40여 가지 향기로운 식물과 그 식물들이 향수에 준 영감, 향수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해외 명품 향수 등 70여 가지 향수 제품이 어떤 식물에서 시작되었는지 관련 일화를 함께 담았다.

1

297회

《향수가 된 식물들: 에르메스 조향사가 안내하는 향수 식물학의 세계》
장 클로드 엘레나 지음 | 카린 도어링 프로저 그림 | 이주영 옮김 | 아멜리에북스 | 2023

163회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
우종영 지음 | 한성수 편집 | 메이븐 | 2019

151회

《파브르 식물기》
장 앙리 파브르 지음 | 조은영 옮김 | 휴머니스트 | 2023

0 100 200 300 400

역사를 읽는 조심스럽고 다양한 방법들

‘역사 읽기’의 조심스러운 부분은 독자의 신념과 쉽게 결합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나 민족의 역사는 감정적으로 읽히곤 한다. 역사는 선조들의 이야기이고 그 무수한 이야기 속에는 환희나 분노, 슬픔과 자부심이 극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역사에 감응하여 자기 정체성의 한 축을 형성한다. 왜 그럴까?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빌헬름 딜타이가 말했듯, 인간은 역사의 관찰자이기 전에 이미 역사의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계승하여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어쩌면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과몰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을 두고 진영을 갈라 다투기도 하므로, 역사를 세심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나침반이 되어줄 역사철학과 방법론

역사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지만 현대에서 과거를 사실로서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사실만으로 역사는 물론 사건이 구성될 수는 없다. 과거는 분명 끊임이 없는 흐름인데, 우리에게 전달된 역사적 사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각각의 사실이다. 이렇게 나열된 사실은 역사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간은 밤하늘을 보며 별들을 분류하거나 연결하여 별자리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든다. 이처럼 역사도 낱알의 역사적 사실들을 묶고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사실을 들춰내고 다양한 사료들을 해석하는 것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지점에서 역사적 관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연구되어야 할까. 또 앞서 말했듯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늘 첨예한 논쟁거리로 촉발되기 일쑤인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 과연 역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역사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책들이 900년대 서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물론 이 책들이 쉽게 읽힐 리 없다. 그러나 역사 분야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900에서 909번 서가의 책들에서 적어도 세 권 정도는 읽어보는 편이 좋다. 다양한 입장과 논쟁에서 어느 한편으로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대를 엮어 읽기: 통시적(通時的)으로 훑고 공시적(共時的)으로 엮기

역사 서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를 시작점부터 전체를 훑으며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시기를 여러 각도에서 읽는 것이다. 특히 전자를 통사(通史)라고 하는데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통사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한 권으로 읽는’ 혹은 ‘하룻밤에 읽는’ 등과 같이 한두 권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압축해서 정리한 책이 있다. ‘민음 한국사 시리즈’, ‘박시백의 ○○사’, ‘이이화의 ○○사’와 같이 비교적 긴 호흡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시리즈도 있다. 급하게 읽어야 한다면 단행본이 좋겠지만, 축약된 역사는 종종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하나의 시리즈를 천천히 정독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통시적으로 읽은 역사는 폭은 넓으나 깊지 않다. 통시적 역사 읽기에 두께를 더하는 독서, 특정 시기를 여러 주제로 엮어 읽는 것이 공시적 읽기다. 예를 들어, 영·정조 시기를 임금과 조정의 관점에서 읽은 후 민중사나 문화사, 경제사 관점에서 추가 독서를 하는 것이다. 시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읽을 때는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계관과 인물, 사건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된다.

논쟁으로 읽는 역사

책에서 다루는 ‘쟁점’은 독자를 자연스럽게 논쟁에 참여시키고 자기 판단을 유도하여 보다 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한국사에서 논쟁적인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고대사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먼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그 어떤 주제보다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고조선의 강역(疆域)과 위만·기타조선의 실체, 낙랑군의 위치를 비정(比定)하는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재야 사학계와 강단 사학계의 학술적 논쟁은 물론, 정치인의 개입과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 등이 겹치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만약 이 주제가 궁

금하다면, 두 진영의 도서를 되도록 비슷한 시기에 읽기를 권한다. 책을 한 권만 읽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특히 역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특이하고 매력적이며 논쟁적인 인물이다. 정조를 계몽 군주로 조명하는 대중적인 흐름이 있었고 독살설이 널리 퍼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비교적 최신 연구가 많고 읽을 만한 책도 많아 상반된 주장을 담은 책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일제 식민사관과 관련하여 조선의 당쟁이 망국을 초래했는가, 조선은 스스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가 등의 주제도 역사 논쟁에서 빠질 수 없다. 전자는 이성무 교수의 《단숨에 읽는 당쟁사 이야기》(아름다운 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후자는 경제사적인 사료와 실증적인 자료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읽기보다는 저자의 논증을 의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뒤 읽기를 권한다.

글을 마치며

만약 한국사에서 하나의 시대만을 읽어야 한다면 19세기 구한말을 추천한다. 이때는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였고, 갑작스럽게 세계관이 팽창하며 외부에서 유입된 사상과 세력들이 있었다. 또한 어떻게든 조선을 살리기 위한 개혁론자들의 다양한 시도들, 일제의 침탈과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초 등을 모두 엿볼 수 있다.

역사 부도나 연표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다. 지도를 보며 역사를 읽으면 그만큼 이해가 쉬워진다. EBS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생용 한국사나 동아시아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 역사 읽기다. 자기 관점에만 갇히기 쉬운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김시덕 교수의 《그들이 본 임진왜란: 근세 일본의 베스트셀러와 전쟁의 기억》(학고재)을, 후자의 경우 백지운 교수의 《함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창비)을 통해 한국사 밖에서의 한국사를 읽어볼 수 있다. ❸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하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NEWS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특별 서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작가 ‘한강’ 특별 서가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다음 날인 10월 11일(금), 본관 2층 문학실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특별 서가를 조성했다. 특별 서가에는 한강 작가의 초기 작품인 《그대의 차가운 손》, 《눈물 상자》,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부터, 2016년 영국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인 《채식주의자》,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과 2024년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을 수상한 《작별하지 않는다》 등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주요 작품 14종이 비치되어 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많은 독자와 만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서가에는 총 28개 언어로 번역된 한강 작가의 작품 79종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79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현장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2024년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등 7개 대학도서관의 한국학 담당 사서와 도서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한국학 자료실 담당 사서와 함께 도서관장 등 관리자가 함께 참석하여 각국의 한국 자료실 동향 및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학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의 한국학 사서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현지 소식을 전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2024년 국가지식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국가지식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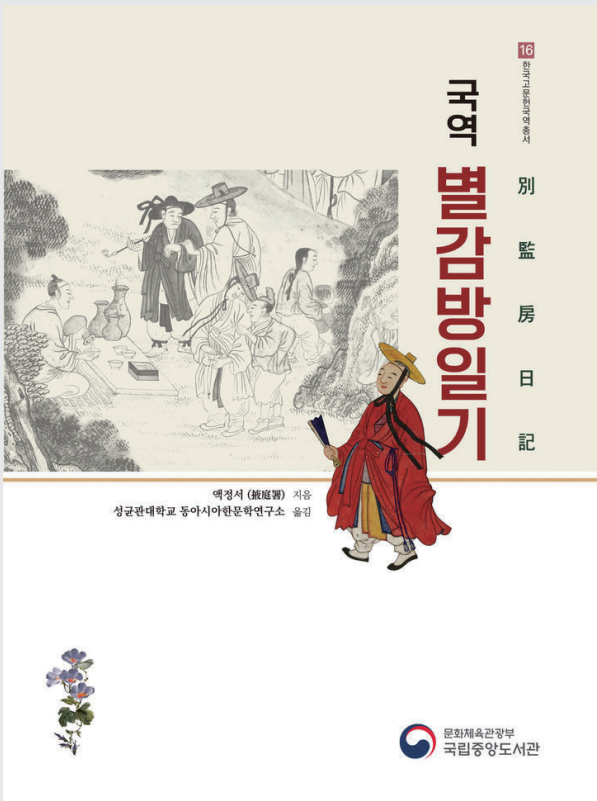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8일(금) 2024년 제2회 국가지식정보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의 특강 ‘AI 시대,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의 미래’와 공유 협력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 기관 간 교류와 지식 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와 함께 ‘오픈엑세스’, ‘국가자료종합목록’, ‘코리안메모리’ 등 3개의 공유 협력 세미나도 열렸다. 오픈엑세스 세미나에서는 OAK 리포지터리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이해와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자료종합목록 세미나에서는 자료 연계와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을 소개했으며, 코리안메모리 세미나에서는 한국 관련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 OAK 리포지터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생산한 디지털 지식 정보를 보존 및 관리하여 국내외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으로 지식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오픈엑세스 아카이브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61

별감의 업무 일지

《국역 별감방일기(別監房日記)》 발간



《국역 별감방일기》표지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1일(월) 《국역 별감방일기》를 발간했다. 《별감방일기》는 조선시대 별감 등이 소속된 액정서(掖庭署)* 운영에 관한 업무 일지로, 1864년(고종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 940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종 시대 왕실 행사의 진행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액정서 관리들은 왕과 왕족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호위하거나 보좌하였다. 이들은 철종 장례, 경복궁 중건, 명성왕후 책봉, 순종의 탄생 및 세자 책봉, 일본 사신 접견, 임오군란, 대왕대비 장례, 청 사신 접견, 세자 가례 등 왕실의 중요 행사에 반드시 참가했다. 행사 후에는 국왕 및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등 왕실 어른들로부터 하사품을 받았다. 향후 하사품 수여자와 빈도, 물품의 종류를 연구한다면 당시의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 자원군으로서 공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기부 활동도 했다.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는 원납전*을,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회갑 행사 때는 원조전*을 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에는 강화도의 군기 수리와 군인의 군복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종묘와 성균관 대성전의 수리, 청계천 하천 정비 때도 원납전을 냈다. 이를 통해 별감들이 중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액정서(掖庭署):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이 쓰는 필기구, 대궐 안의 열쇠, 궁궐 설비 등을 맡아보던 조직. 태조 원년에 설치하였고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 원납전(願納錢):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 납부하게 한 돈.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등 폐단이 있었다.

* 원조전(願助錢): 일종의 부조금이다. 1864년 여흥부대부인 회갑 때 사알(司謁)과 사약(司鑰)이 원조전이라는 명목으로 100냥을 바쳤고, 별감 역시 100냥을 바쳤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5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



「도서관 산책: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도서관 산책: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로움, 고립, 은둔을 경험했거나 이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사는 유희경 시인의 문학작품 낭독으로 시작했으며, 고립과 은둔을 극복한 유승규 대표(안무서운회사)의 진솔한 강연이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목록도 함께 제공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보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058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도서 지원



《연령별 추천도서 가이드북》표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10월 말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령별 추천도서 가이드북》과 책꾸러미를 지원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0년부터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년보호기관 청소년에게 책 꾸러미(총 5,951명, 1만 6,756책)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그림책 테라피, 진로 독서, 작가와의 만남 등 총 18개관 27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의 교정 시설 입소로 인해 열악한 양육 환경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독서 지원을 확대했다.

《연령별 추천도서 가이드북》은 연령별 단계(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따른 발달 특징과 독서 효과, 연관 추천 도서 목록 등의 내용을 담아 언제든지 꺼내 보기 쉬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가이드북과 함께 세 권의 도서를 한 꾸러미로 포장해 법무부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통해 총 80가구(240책)에 전달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여성 수용자가 양육하는 18개월 이하 영유아를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2회)도 진행했다. 엄마와 함께하는 ‘독서오감활동’, ‘엄마 독서교육’ 등 제한된 환경에서 책을 통한 정서적 교감 형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8,267명, 미성년 자녀 1만 2,791명(법무부, 2024년 기준)

*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서울/대구/대전/광주) 내 수용자 자녀 지원 업무(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 및 민간 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3

국내 도서관 NEWS

경기도서관 민간 위탁 철회, 직영 운영 결정 도민 참여형 운영위원회 도입



경기도서관 조감도(출처: 경기도)

경기도가 광역 대표 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서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 직영 방침을 밝혔고, 도민 참여형 운영위원회와 개방형 직위의 도서관장 임명을 통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서관을 기후환경, AI 리더러시, 이용자 친화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서관은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224억 원이다.

전남 순천시 순천 어울림도서관 개관



순천 어울림도서관 전경

순천 어울림도서관이 10월 2일(수) 정식 개관했다. 어울림도서관은 동천 번 저류지 위에 건립된 순천시의 9번째 시립도서관으로, 애니메이션·정원·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특성화 도서관이다. 이 세 가지 테마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자료실’, ‘우주항공 자료실’, ‘정원 자료실’은 순천시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 400만 종의 전자자료 서비스를 통해 일반 분야 도서관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2층의 메인 공간인 ‘어울마당’은 강연, 공연,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위케이션 지원 PC, 노트북·태블릿 대여, 오디오북 체험 부스, 3D 실감형 콘텐츠 공간 등 디지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야외에서는 오천그린광장과 연계한 북크닉 용품 대여 및 정기적인 문화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어린이를 존중하는 책 61종 발표



(출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가 ‘2024 어린이를 존중하는 책’ 61종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어린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료 시민이자 권리를 가진 존재로 표현한 책들로, 전국 기적의도서관 사서들이 6개월간 토론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보편적 가치, 탄탄한 서사, 지속적인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책들이다. 주요 도서로는 《벽 타는 아이》, 《5번 레인》, 《내 이름은 뽀빠 룽스타킹》 등이 포함됐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이 목록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고, 추가 신청도 받는다. 기적의도서관은 2003년부터 건립된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전국에 18개관이 운영 중이다.

파주시 파주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콘서트 개최

경기도 파주시는 11월 14일(목) 오후 3시 파주시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파주시도서관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 도서관의 역사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도서관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도서관의 역사와 변화를 담은 기념 영상 시청하기와 ‘누구나 도서관 정책퀴즈대회’를 통해 시민들과 도서관 정책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시민공감 3분 스피치’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시민 6명의 목소리를 듣고, 도서관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질 의응답’에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도서관 정책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후 파주시 도서관의 비전과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



안양시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식(출처: 안양시)

안양시는 11월 13일(수) 만안구 안양동에 ‘큰샘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782㎡ 규모로, 자료실, 문화교실, 미디어체험실, 전시공간 등을 갖췄다. 그림책, 창작동화, 아동문학, 과학 도서 등 맞춤형 도서관도 다양하게 구비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휴관한다.

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휴관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원지공원도서관 개관



원지공원도서관 전경(출처: 원지공원도서관)

영등포구는 11월 12일(화) 대림3동에 위치한 ‘원지공원도서관’을 정식 개관했다. 원지공원도서관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상 4층, 연면적 약 596㎡ 규모로 조성된 도서관은 층별로 특색 있는 테마를 갖췄다. 1층은 개방형 소통 공간, 2층은 어린이 전용 공간, 3층은 오픈형 열람실, 4층은 개인 학습과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은퇴 이후의 삶’과 ‘건강’ 등을 다룬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관을 기념하여 ‘나다움을 잊지 않는 자기 계발’을 다룬 행사가 한 달간 진행되며, 전시, 아크릴화 그리기, 작가와의 만남, 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국외 도서관 NEWS

2024년 IFLA '친환경 도서관상' 및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발표



2024년도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시상식(출처: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2024년도 친환경 도서관상과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수상 도서관을 발표했다. 1등은 미국 미줄라 공공도서관이 대규모 프로젝트 부문을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이 도서관은 친환경 건물 설계와 1,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있다. 2등은 독일 파더보른 시립도서관으로, 공유경제 및 재활용 가구 제작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등은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생물학도서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년도 올해의 공공도서관상에는 중국 베이징 시립도서관이 선정됐다. 베이징 시립도서관은 스노헤타 건축사무소와 이카디가 협력해 설계한 7만 5,000㎡ 규모의 공간으로, 장엄한 건축과 친환경 기술을 통해 지식 공유와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IFLA, '브리즈번 선언' 통해 도서관의 정보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역할 강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정보의 미래 정상회담'을 통해 '브리즈번 선언(The Brisbane Declaration)'을 발표하며, 도서관이 정보 접근성 증진과 지속 가능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기후변화 대응, 정보 신뢰성 강화, 기술 격차 해소, 원주민 권리보호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FLA는 선언문을 통해 도서관들이 지속 가능성과 공평한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이를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모로코 라바트, 2026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

유네스코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를 2026년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했다. 라바트는 문해성 계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독서 역량 강화,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라바트는 도서에 대한 접근성 증진, 출판산업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혜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바트는 2026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국국립도서관, 2024-2030 지속 가능성 전략 발표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응하여 도서관이 친환경 도서관 모델을 선도하고, 국가 장서를 미래 세대까지 보존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로는 건물 탄소 배출 저감, 지속 가능한 사업 지원, 기후행동 협력 강화, 운영 및 보존 과정의 지속 가능성 통합 등이 포함되었다. BL은 히트 펌프와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과 카페 친환경 옵션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전략의 성과는 연 2회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한 권의 책은
위대한 정신의 귀중한 활로적이고,
삶을 초월하여 보존하려고
방부 처리하여 둔 보물이다.

- 영국 시인 존 밀턴

